

한국, ‘농업기계화센터’ 집행이사국 첫 진출

농진청, 태국 방콕 총회서 한국 대표로 처음 선출

한국이 유엔 아·태 지속가능한 농업기계화센터(UN CSAM) 집행이사국에 처음 선출됐다.

UN CSAM(United Nations Centre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Mechanization)은 UN ESCAP 지역 기구 중 하나로, 2012년에 발족하여 농업기계화 및 기술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개발과 빈곤 감소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CSAM 집행이사국은 당연직(중국) 포함 9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1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총회에서 회원국 무기명 투표를 거쳐 우리나라가 집행이사국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UN ESCAP(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는 유엔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5개 지역경제위원회 중 하나로써, 1947년에 설립, 62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아태지역의 경제, 사회 협력 및 개발을 위한 중심적 역할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한국을 대표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 임기 동안 9개 집행이사국과 함께 공식 활동을 펼친다.

집행이사국(9개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중국(당연직)이다.

구체적으로 △추진 전략 수립 및 이행 지원 △재정 현황 점검 △추진 사업 평가 및 자문 △국제기구, 지역기관, 비정부 조직,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 중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선출이 우리나라가 아·태 지속가능한 농업기계화센터 회원국으로서 지역 공개 토론회 및 연례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농업기계화와 기술 혁신에 기여해 온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높은 농업기계화 수준과 디지털 농업기술 강국으로써의 역량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를 기회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우리나라 농업기계의 우수성을 알리고, 향후 수출시장 확대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집행이사국 활동 중 하나로 회원국 대상 훈련 프로그램 개설, 우리나라 농기계 기술 개발 경험을 전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미얀마 지진피해 복구 특별성금’

전은지역사랑봉사단, 유니세프 통해 1000만원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 지역사랑 봉사단(공동단장 백종일 은행장, 정원호 노조위원장)은 서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미얀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직원 특별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은 지난달 발생한 7.7규모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미얀마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복구 및 재건작업에 힘을 보태고자 특별성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조미진 사무총장, 조재성 사회공헌본부장,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 전북은행 박지훈 브라보코리아사업부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 직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전달한 특별성금 1000만원은 미얀마

유니세프를 통해 교통량이 끊기고 수도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조미진 사무총장은 “수년간의 내전에 더해 지진의 피해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 놓인 미얀마를 위한 전북은행 직원들의 따뜻한 관심과 나눔 참여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은 “예측하기 힘든 강진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미얀마에 전북은행 직원들의 정성과 사랑이 잘 전달되어 빠른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인류에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익산원에농협, ‘2025 온라인 직거래 기반육성’ 사업자 선정

전북농협은 2025년 온라인 직거래 기반 육성 지원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익산원에농협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온라인 농식품 직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온라인 직거래 지원센터” 조성에 따라 영상 장비, 교육 및 컨설팅, 홍보와 고객관리, 운송비 등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익산원에농협을 비롯해 성주 월항농협 등 전국을 통틀어 2곳이다.

익산원에농협은 2005년 자사물 ‘농협 이마켓’을 통해 본격적인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이후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한 결과, 2024년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29% 증가한 2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매출이 88% 증가한 81백만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2년 농협산지유품 혁신대상, 2023년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경진대회 최우수상, 2024년 산지온라인연도대상 최우수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통해 산지 온라인 유통을 선도하는 농협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정환 본부장은 “전북농협은 농업소득 3천만원 달성을 위해 산지온라인 사업을 적극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바이오진흥원-전북대임상지원센터, 업무협약 추진

지역특화소재 맞춤형 기능성식품 · 메디푸드 산업발전 협력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과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이하 임상지원센터)는 지난 25일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능성식품 및 메디푸드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특화소재를 활용한 맞춤형 기능성식품 및 메디푸드 상용화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메디푸드 공동 연구개발, 인체적용시험 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 지원 등의 폭넓은 협력을 다짐하였다.

최근 바이오산업에서 임상시험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바이옴 등 첨단 바이오소재를 활용한 기능성식품 개발과



인해 건강기능식품과 메디푸드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인체적용시험을 통한 제품의 효과와 안전성 입증 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바이옴 등 첨단 바이오소재를 활용한 기능성식품 개발과

임상시험은 국내의 시장 진출과 산업 생태계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대임상지원센터 이승욱 센터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능성식품 임상시험 및 연구개발이 한층 고도화될 것”이라며, “국내 바이오·식품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 지역의 특화 바이오소재를 기반으로 기능성식품 및 메디푸드 산업의 상용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4일 주식회사 뉴텍과 스마트축산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축산 상호협력체계 구축

전주상의, 주식회사 뉴텍과 업무협약 체결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4일 주식회사 뉴텍(대표이사 김명호, 유영우)과 스마트축산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식회사 뉴텍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축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주식회사 뉴텍이 개발·보급 중인 무인 자동 급이 시스템'을 시연하여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는 지능형 사료를 활용한 정밀 급이 시스템으로,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로 알려져 있다.

주식회사 뉴텍의 김명호 대표이사는 “스마트 축산모델 구축을 통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겠다”며 “전주상의 회원기업으로서 축산 현장의 혁신을 이끄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상의 김정태 회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협력의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며, 축산 자동화 기술 보급 확대에 따라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회원기업들의 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지며, 상생 발전을 모색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